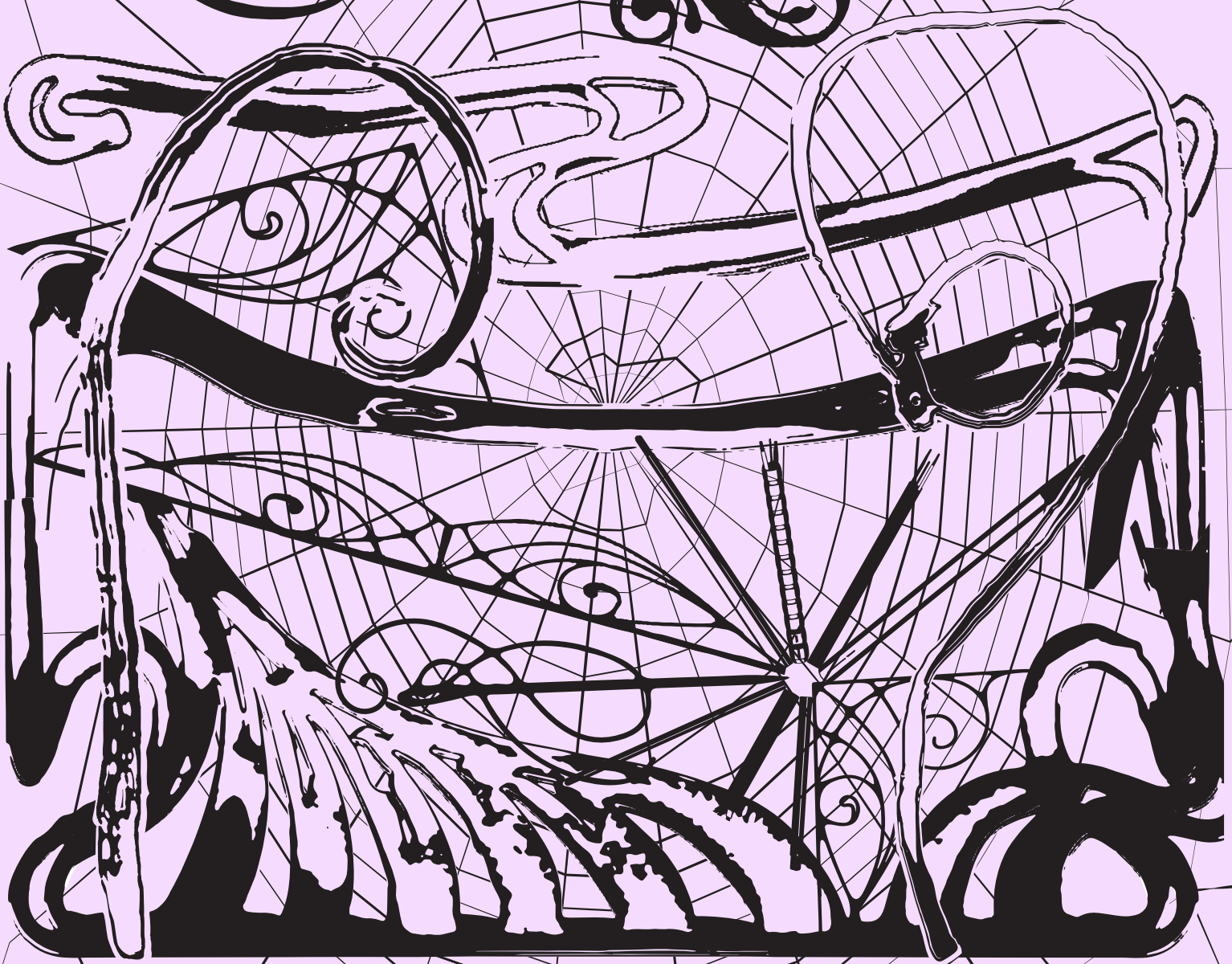


THE TALENTED BUT LOST ARTIST'S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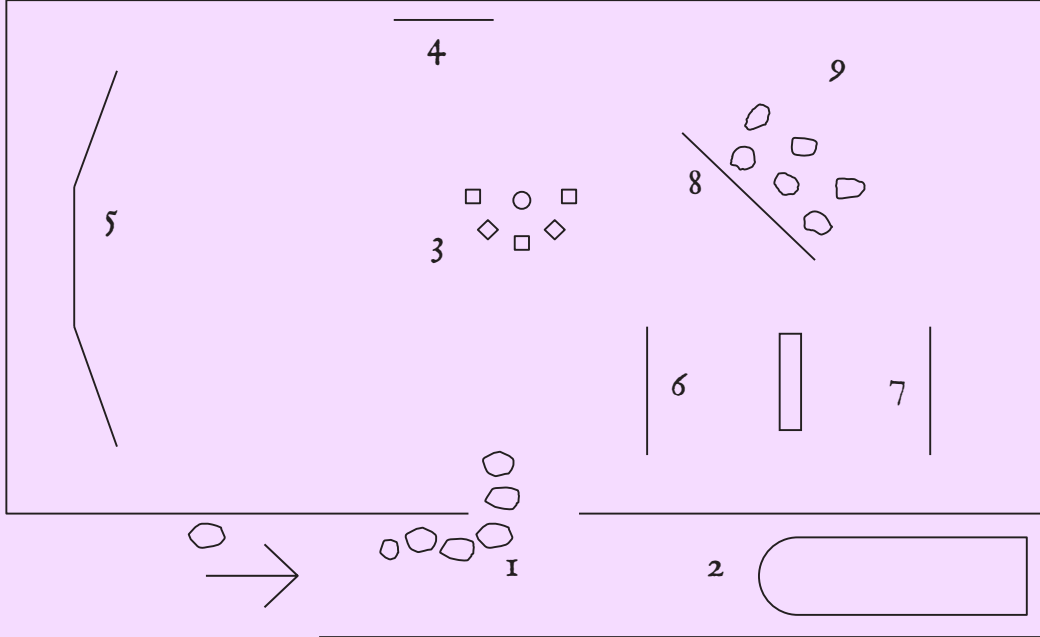


2022.8.11 - 10.23
당속 그룹 이야기

제1전시실 (1F)

미지와 야생 *The Unknown and Wildness*

《미지와 야생》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수된 신화, 정령과 야생의 공존 서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관에서는 상이한 시간과 문화를 가진 열린 세계 속에서 동물과 신화의 영적 존재 등 비인간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마술적 상상력과 시공간을 교차하는 이야기는 다중의 우주(cosmology)를 마주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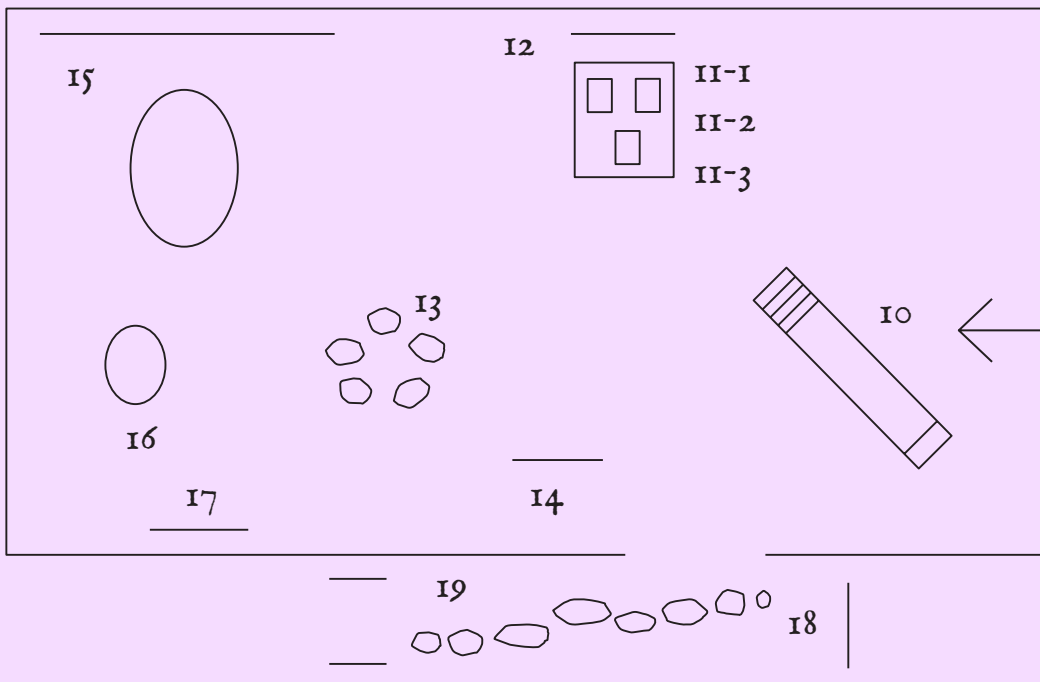


- I 업체eobchae, 《업체코인 브레드크람》, 2022, 아크릴과 금속, 가변 크기
제작: 김슬기
- 2 모레신 알라야리, 《미지의 것을 보는 그녀: 아이샤 판디샤》, 2018, 3D 프린팅 레진 조각, 수조, 단채널 HD 비디오, 7분 11초
- 3 이영주, 《환영》, 2022, 도자 가면들, 변형된 가상현실 헤드셋, 금속 스탠드, 의자, VR 비디오, 가변 크기, 3분 50초
- 4 이영주, 《표범의 눈》, 2021, 애니메이션, 3분 50초
음악 작곡: 크리스티안 아미고
- 5 클라라 조, 《디 아니마》, 2021, 3채널 비디오, 사운드(스테레오), 30분 48초
- 6 무니페리, 《리서치 워드 미, 실종: 유행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2022,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테레오), 40분
- 7 무니페리, 《파란중첩》, 2022,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스테레오), 2분 24초
- 8 나타샤 톤테이, 《마팔루스세 시대》, 2021, 단채널 HD 비디오, 14분 36초
- 9 나타샤 톤테이, 《와아낙 위뚜 와뚜》, 2021, 단채널 HD 비디오, 24분 58초
- I0 송민정, 《산》, 2022,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설치, 무한 반복, 컬러, 사운드

제2전시실 (2F)

변이 세계 *Mutant World*

《변이 세계》는 현실에서 탈주하여 사변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근미래의 현실을 예견합니다. 이 관에서는 기술에 의해 증강된 의식과 그물망처럼 확장되는 자아, 합성과 변형을 거쳐 생성된 변이종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상과 실제 공간을 교차하며 제3의 감각과 경험의 형성을 유도합니다. 이 관에서는 '세계 짓기(worlding)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반추하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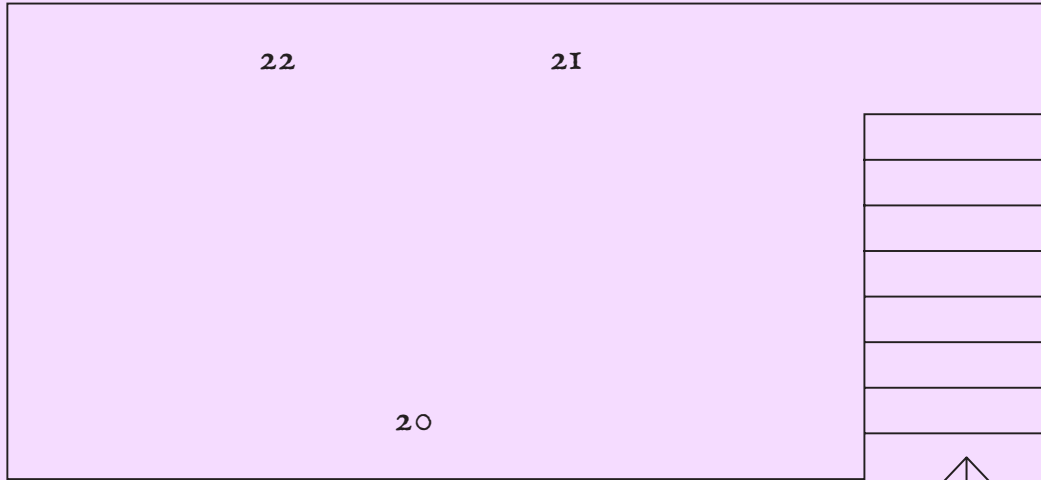
- II-I 돈선필, 《사족보행 스테이션_아토막》, 2022, 혼합매체, 50×42×45cm
- II-2 돈선필, 《사족보행 스테이션_히카리》, 2022, 혼합매체, 57.5×42×45cm
- II-3 돈선필, 《사족보행 스테이션_컨버트》, 2022, 혼합매체, 58×42×45cm
- I2 돈선필, 《잠꼬대와 대화하면 안 된다》, 2022, 4K 비디오, 7분 18초
- I3 황선정, 《탄하무 중》, 2022, 디지털 스텐프링, 3D 프린팅에 채색, 가변크기
- I4 황선정, 《탄하무_춤의 시간들》, 2022, 단채널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13분
- I5 케이켄, 《형태형성의 천사들과 버블 이론》, 2022, CGI 필름, 4K 비디오, 컬러, 사운드
- I6 케이켄 + 클리포드 세이지, 《형태형성의 천사들과 버블 이론》, 2022, VR 스코어 및 사운드 디자인: Wavesovspace
- I7 케이켄 + 가브리엘 마산, 《Uxkme》, 2022, 라이브 박스 인쇄, 225×151.8×10cm 스코어 및 사운드 디자인: Wavesovspace
- I8 업체eobchae, 《AMAEBCH》, 2022, 단채널 Full HD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11초
- I9 업체eobchae, 《업체코인 브레드크람》, 2022, 아크릴과 금속, 가변 크기
제작: 김슬기

아카이브 라운지 (2F)

온라인 전시 뷰잉룸 <균사체의 정원>

Online Exhibition Viewing Room *Mycelium Garden*

<균사체의 정원>은 페스티벌 참여자들의 디지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입니다. 아카이브 라운지에서는 균사체 정원 사이를 산책하며 디지털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전 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에 참여한 필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가 작성한 문장과 글을 인쇄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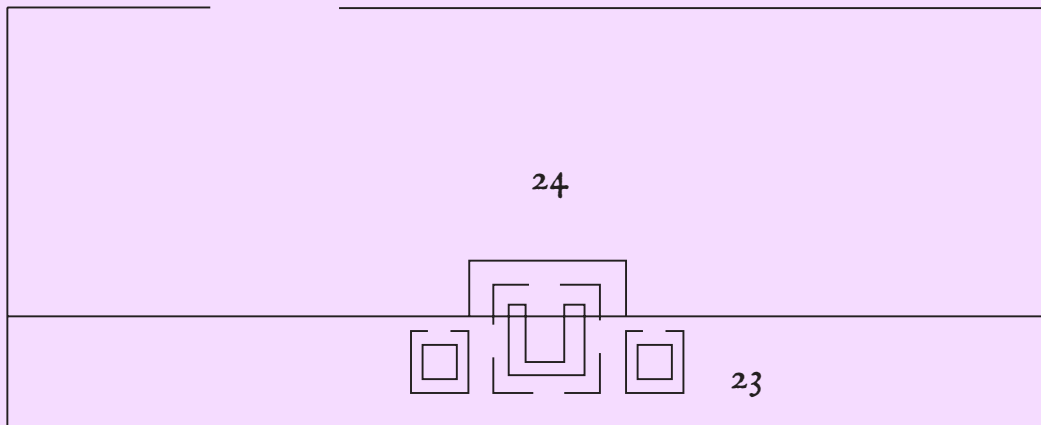
제2전시실
출구

- 20 업체eobchae, 「Welcome to luge. money」, 2022, 시트지에 QR 코드 인쇄, 가변 크기
- 21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워크숍 원고
- 21-1 보선, 「정원사 균 씨의 하루」, 2022
- 21-2 서한나, 「텍스트 큐피드 에로스」, 2022
- 21-3 이길보라, 「나의 계승수어 사진」, 2022
- 21-4 하미나, 「해피 앤딩」, 2022
- 22 <균사체의 정원> 온라인 전시

스페이스필룩스 (1F)

지하의 정원 *The Underground Garden*

«땅속 그물 이야기»는 모두가 연결되어 서로 다른 종의 세계와 함께 형성해나가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지하의 정원>에서는 혼프(하우스 오브 내추럴 파이버)의 작품과 함께, 삶 속에서 서로 연결되기의 전략, 수평적 관계와 문화 안에서 소통하는 기술, 땅의 실천, 기술과학 안에서의 여성의 개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땅의 기운을 담은 콜렉티브, 공동체, 참여자들은 그들만의 삶의 실천과 지식을 나누고 친밀한 경험을 제안할 것입니다.



- 23 혼프(하우스 오브 내추럴 파이버), 「임산」, 2022, 철 구조물, DIY 전자회로, 식물, 비디오, 마이크로컨트롤러, 직물, 가변 크기
혼프 : 지셀라 마리아, 이라 아그리비나, 노나 요아니사라, 비오 안다루, 하리오 후토모, 도니 유단토
협력 : 유디안토 아스모로, 요가 페르마나 푸트라, 지안 핑가, 호기 테트라, 갈리 쿠르니아완, 아딧야 타마, 루이스 마르셀리노
- 24 혼프(하우스 오브 내추럴 파이버), 「퍼블릭 랩 & 키친」, 2022

THE FABLE OF NET IN EARTH

2022 아르고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
2022.08.11-10.23

땅속 그물 이야기

2022 ARKO Art & Tech Festival
The Fable of Net in Earth
2022.08.11.-10.23.

2022 아르고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가는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와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이 사변적인 이야기를 넘어 현실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이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한다는 환상을 증강현실, 인터랙션과 같은 디지털 기반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 또는 상상적 이야기가 얹과 실천으로 연결되어 세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땅속 그물 이야기'는 웹 3.0의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체계를 땅속의 그물망인 버섯, 곰팡이와 같은 균사체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자연, 신화적 존재의 얽힘을 땅속 존재들로 호명하고 이들이 그려내는 '세계 짓기'(worlding)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¹

이러한 이야기는 근대 지식 체계가 부여해온 질서를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대의 지식체계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들의 혼종에서 기인한 혼돈을 잠재우거나 '세계의 탈주술화'를 지향하며, 성과 속, 문명과 비문명, 영혼과 산 자들의 영역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페스티벌은 인간 중심의 과학적, 합리주의적 사유체계가 분리해온 동물, 영혼, 신화 등 비인간의 삶과 앓음 이어 붙이는 '세계의 재주술화'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뒤엎힌 마술적 세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땅속 그물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디지털 창작 방법을 통해 정상성과 규범에서 탈주한 스토리텔링이 활성화되는 시공간으로서 아르고미술관 전시장과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설정합니다. 제1 전시실 <미지와 야생>은 신화, 영혼, 야생의 오랜 공존 서사와 함께 상이한 시간대의 다중우주를 경험하게 합니다(나타샤 톤테이, 무니페리, 모레신 알라야리, 이영주, 클라라 조). 제2 전시실 <변이 세계>는 웹 3.0의 탈중앙화와 분산의 네트워크 방식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변적 세계로 안내합니다(돈선필, 송민정, 업체eobchae, 케이켄, 황선정). 스페이스필록스의 <지하의 정원>은 혼프의 작품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땅의 기운을 담은 콜렉티브와 공동체의 삶의 지식과 실천을 공유합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가상 전시관인 <균사체의 정원>은 곰팡이의 성장 특징에 따라 구성된 마이크로 세계관 속에서 관람객이 미세한 포자가 되어 디지털 작품을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관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11명의 작품과 더불어 게스트 큐레이터 3인이 초대 작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김안나, 비살 쿠마라스와미×리티카 비스와스, 리 위판×첸 상웬, 클라라 조×마라 콜멜). 또한 4인의 필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가 현실을 바꾸는 이야기와 실천의 가능성을 함께 논하였던 페스티벌의 사전 워크숍 「함께-세계 만들기 Worlding-with」의 결과물인 문장과 글은 <균사체의 정원>의 전기신호로 선보여집니다.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2층 아카이브 라운지에 마련된 뷰잉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아트페스티벌 타이베이(Digital Art Festival, Taipei)와의 협력으로 <균사체의 정원>에서의 온라인 전시와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디지털아트페스티벌 타이베이의 전시 기간인 9월 30일에 맞춰 공개됩니다.

다중의 관점이 얽히고 혼합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땅속 존재들은 다양한 지구의 생명체와 연합하여 잘 살고 잘 죽는 '퇴비적' 존재²들입니다. 변이종과 하이브리드 존재의 렌즈를 통해 그려낸 세계는 다음 세대의 회복과 재구성, 생성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운 씨앗을 자라게 하는 변이의 힘이자 땅의 에너지입니다. 지하의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변이의 세계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땅속 그물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1984)에서 곰팡이 숲의 변이체들과 인간 공동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매개자 나우시카의 지혜를 공유합니다. 또한 오염된 곰팡이 숲이 땅속 깊은 곳에서 재생과 순환을 준비하는 생태순환의 세계관을 참조합니다.

2 도나 해러웨이는 '퇴비'(compost)를 탈인간중심주의의 형상이자 복수종들의 삶과 죽음이 상호 의존적으로 뒤얽힌 구체적인 형상으로 말합니다.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 옮김(서울: 마농지, 2021), 13 참고.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 *Mycelium Garden*



온라인 전시관 〈균사체의 정원〉은 자연물인 균사체와 인위적인 정원의 결합물로서, 가지 뿌리처럼 연결되는 관계를 지향하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을 은유합니다. 균사체는 곰팡이의 영양기관으로 땅 밑에서 실처럼 균사를 뿜어 성장하고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신경망처럼 언어적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땅 밑 균사체가 살아가는 미시세계이자 균사체의 언어가 발생하는 장소로서 온라인 전시관을 제시합니다. 온라인 전시관은 균류의 성장 특징에 기반하여 네 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곰팡이균류의 정원〉을 중심으로 〈자낭균류의 정원〉, 〈담자균류의 정원〉, 〈접합균류의 정원〉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 정원은 포털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는 참여자들의 디지털 작품과 필자 4인의 문장을 균사체 구조물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균사체 정원 사이를 산책하며 디지털 작품을 관람하는 경험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곰팡이균류의 정원

자낭균류의 정원

참여 작가 김안나, 비살 쿠마라스와미 × 리티카 비스와스
× 게스트 리 위판 × 첸 상웬
큐레이터 클라라 조 × 마라 조안나 콜멜

담자균류의 정원

참여작가 나타샤 톤테이, 돈선필, 무니페리,
송민정, 업체eobchae, 이영주, 케이켄, 모레신 알라야리,
훈프(하우스 오브 내추럴 파이버), 황선정

접합균류의 정원

협력기관 디지털아트센터, 타이베이
참여작가 위 리우 & 쓰츨 우, 저하오 쉬, 초청 창, 춘텐 천, 타성 쿠,
퍼우청 차이
접합균류의 정원은 디지털아트페스티벌 타이베이(Digital Art Festival, Taipei)의 전시 기간인 9월 30일에 맞춰
오픈합니다.

필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

참여 작가 Artists

나타샤 톤테이(Natasha Tontey)

나타샤 톤테이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가공된 공포'를 둘러싼 역사와 신화의 허구를 탐구하는 것을 주된 예술적 실천으로 삼는다. 작가는 기존의 제도적 관점이 아닌, 소외된 존재들의 미묘하고도 사적인 투쟁의 관점으로 투영한 또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관찰한다. 그의 작업은 트랜스미디어알레 2021(2021, 사일런트 그린 문화지구, 베를린), 라이브웍스 페스티벌 아트 2021-댄스 라이프(2021, 퍼포먼스 스페이스, 시드니),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2021(2021, 싱가포르), 아시아 영화 기록보관소 2021(2021, 올덤 씨어터, 싱가포르) 등에서 선보였다. 2020년에는 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ZKM)와 솔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에서 'HASH'상을 받은 바 있다.

돈선필

돈선필은 하위문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그것의 탄생과정을 다양하게 소비하며 재생산한다. 또한 현실을 모방하고 복제하는 해상도 과잉 시대의 강박적 리얼리티를 비평하는 입체 조형물과 영상 작업을 제시한다. 개인전 «SADER X SABER»(2021, 미도 파), «Cats on Mars»(2021, 쿤스트할오르후스, 오르후스), «Portrait Fist»(2020, 아트선재센터)를 개최했으며 단체전 «조각 총동»(2022, 북서울시립미술관), «Selfish Art-Viewer: 오늘의 감상»(2021, 금천예술공장), «디자인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2018, 그라시메세, 라이프치히) 등에 참여하였다.

모레신 알라야리(Morehshin Allahyari)

모레신 알라야리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계 쿠르드인 작가로 3D 시뮬레이션, 비디오, 조각, 그리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화와 역사를 재고한다. 작가는 서구의 기술적 식민주의의 영속적인 영향력에 대항하는 복합 서사를 동남아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맥락에서 아카이브 연구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직조한다. 그의 작업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뉴 뮤지엄, 휘트니 미술관, 풍피두 센터, 몬트리올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등 다수의 전시와 축제, 워크숍에 소개되었다.

무니페리

무니페리는 아시아 페미니즘과 비거니즘, 인간동물학(human-animal studies) 등을 횡단하며 리서치와 사유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수직, 수평으로 엮어 영상매체로 제시한다.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의 연결지점을 찾으며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시공을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금호영아티스트»(2022, 금호미술관), «빈랑시스»(2021, 씨알콜렉티브), «Moon Perry Exhibition»(2020, 뷰로크라시 스테디스, 로잔)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부터 큐레이터 장한웬과 온라인 아시아 페미니즘 플랫폼 AFSAR(Asian Feminist Studio for Art and Research)을 시작하여 여러 연구자, 활동가, 작가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송민정

송민정은 작가 본인이 사용자가 되거나 관찰자, 사색자로 참여하는 세계 내에서 신체적인 이동을 통해 흐름을 만든다. 몸이 놓인 장소와

심리적 장소를 뒤섞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감정으로부터 작업의 언어를 찾는다. 개인전 «이빨 버터»(2021, 쿤스트할오르후스, 오르후스), «COLD MOOD(1000% soft point)»(2018, 취미가) 등을 선보였으며, «거울 속의 사물은 실제보다 가까이 있다»(2021, OCAT, 상하이), «경계에서의 신호»(2021, 남서울 시립미술관), «전술들»(2021, 백남준아트센터), «부산비엔날레 :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2020, 부산현대미술관), «연대의 흠씨»(2020,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젊은모색»(2019,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업체eobchae

업체eobchae는 김나희, 오천석, 황희로 구성된 오디오-비주얼 프로덕션으로, 비평적 관점이 소거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거래한다. 컴퓨팅 장치를 통해 토착적인 초상과 미래에 속하는 이미지들을 불러오며, 생성된 타임라인을 가로질러 물질적인 신체와 가상적인 영혼을 연동시킨다. 개인전 «AMAEBCH»(2022, 뮤지엄헤드), «업체eobchae × 류성실, CHERRY-GO-ROUND»(2019,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선보였으며, «아레시보»(2022, TINC), «현실이상»(2020, 백남준아트센터), «내가 사는 피드»(2020, 아르코미술관), «뉴스, 리플리에게»(2018, 북서울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영주

이영주는 가족, 국가, 인종, 문화, 언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왔다. 최근 작업에서는 탈식민지적, 탈남성주의적 시점에서 집단과 개인의 연관성을 탐구하여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퍼포먼스, 드로잉, 입체 조형물 등을 통해 서술한다. 또한 개인의 성 정체성, 사회적 역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 소외, 동화되는 현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제시한다. 그의 작업은 «리자디언들»(2021, 탈영역우정국), «We are never going to be the same»(2021, 오치 프로젝트, LA) 등의 개인전과 «재난과 치유»(202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쿠리치바 비엔날레»(2013, 오스카 니마이아 박물관, 쿠리치바) 등의 단체전에서 선보여왔다.

케이켄(Keiken)

케이켄은 2015년 타나 크루즈, 하나 오모리, 이사벨 라모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콜렉티브로, 런던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멕시코, 일본, 유럽, 유대계 등 새로운 구조와 생존 방식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실험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메타버스를 건설하고 상상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영화, 게임, 설치, 확장현실(XR), 블록체인, 퍼포먼스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동화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인식을 지배하는지 탐구한다. 2022년 네덜란드 엔세헤데의 테템, 2020년 영국 리버풀의 FACT (Foundation for Art & Creative Technology)에서 개인전 «증강공감»을 가졌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2년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를 수상하였다.

클라라 조(Clara Jo)

클라라 조는 설치와 영상을 주요 매체로 사용하여 우리의 취약한 점과 불안정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연결된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뉴욕 바드 컬리지에서 학사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공간 실험 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그의 작업은 런던 왕립예술원, 킹스 컬리지, 바비칸센터, 베를린 필름 앤 비디오편 연구소 아르스날,

베를린 함부르거 반 호프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에서 전시되었다. 2022년에는 독일의 올덴부르크 에디스 러스 미술관에서 개인전 «미러 터치»를 열었으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혼프 | 하우스 오브 내추럴 파이버 (HONF | The House Of Natural Fiber)

혼프는 1999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시작된 콜렉티브로, 수하르토 정권 아래 자행되는 족벌주의와 부패 등 여러 사회적, 정치적 소용돌이에 대항하며 탄생했다. EFP(Education Focus Program 교육 중심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통해 협력적, 학제적, 기술적 행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집중하며 여러 사회, 문화, 환경문제에 대응한다. 2011년 재단으로 전환하였으며,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예술·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작업은 «Wunder der Prärie Internationales Live-Art Festivals»(2021, Zeitraumexit, 만하임), «커런트 페스티벌»(2021, ENBW-Terrain, 슈투트가르트), «죽은자들의 아틀라스»(2018, 혼프 시민 연구소, 욕야카르타), «인간의 모험»(2016,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여러 단체전에서 선보여왔다.

황선정

황선정은 인간-자연-기술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찾으며, 다학제적 연구를 근간으로 비인간, 포스트휴먼과 기술, 자연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디스토피아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결핍에 대해 상상하면서 감각과 비감각, 인간과 비인간의 인터페이스를 실험하고, 이 시대의 휴머니티를 제안한다. AI, 제너러티브 코딩, 음악, 오디오비주얼 등의 다양한 기술 매체와 유기성을 바탕으로 하는 컴퓨팅 작업, 유기체 운동 연구를 통한 바이오 미디어와의 결합을 시도한다. 최근 작업에서는 식물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운드 작업과 군사 네트워크를 가상세계로 구현한 «탄하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작업은 «오가노토피아»(2022, 파라다이스아트랩),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단체전에서 선보여왔다.

참여 작가 × 게스트 큐레이터 Artists * Guest Curators

김안나, 비살 쿠마라스와미(Vishal Kumaraswamy)
× 리티카 비스와스(Ritika Biswas)

김안나

김안나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작가이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인 그는 재미교포라는 자신의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토대로 인류가 기술 및 자연과 맺는 관계와 관련하여 생태학적 관점을 생성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환경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의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것을 다루며, 지배적인 서사에 대항하고 대안적 주제 생산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고찰한다. «Beyond Human»(2021, Media338), «Neosurreal»(2022, 7T Gallery)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디지털 공명»(2022, GMAP),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2021, 바다미술제),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2021, 부산현대미술관), «마이너스 엔트로피의 장»(2021,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싱가포르)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비살 쿠마라스와미(Vishal Kumaraswamy)

비살 쿠마라스와미는 텍스트, 필름, 사운드, 퍼포먼스, 컴퓨터이셔널 아트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 인도 방갈로 기반의 작가이자 큐레이터다. 그의 작업은 카스트 제도의 하위 계급에 위치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비롯하여 카스트 제도, 인종, 테크놀로지 등을 둘러싼 다양한 비평적 관심에서 기인하며, 실험적 기술들을 활용한 미디어 기반의 작업들을 제작해오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 리서치 파빌리온, 아테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바드 컬리지 큐레이터학 연구센터,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등에서 작업을 선보였다. 개인전 «디지털 현실»(2022, 사이트 갤러리, 셰필드) 등을 선보였으며, «스피치 사운드»(2022, 카로우 아트 페스티벌, 카로우), «경로 변경»(2022, 켈거리 현대미술관, 켈거리)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리티카 비스와스(Ritika Biswas)

리티카 비스와스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의 큐레이터로 실험적 가상 예술 플랫폼과 비인간 생태학, 그리고 탈식민지적 디지털 전략에 관심을 둔다.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기반으로 생태주의와 공동체 만들기의 실천을 모색하면서 이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한다. 그는 싱가포르와 뉴욕의 여러 큐레토리얼 공간을 거쳐, 영국 노팅엄 뉴 아트 익스체인지와 노팅엄 아트 밀라 디지털 페스티벌의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2021년 바다 미술제: 인간 비인간 아상블라주»의 전시감독을 맡은 바 있다.

리 위판(Li Yi-Fan) × 첸 상웬(CHEN Hsiang-Wen)

리 위판(Li Yi-Fan)

리 위판은 조각, 회화, 프로젝션 등 다양한 매체를 작업에 사용한다. 그의 작업은 배출된 폐기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시장에 놓인 작업은 환상적 내러티브 오브제로 변형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관객들은 파편화된 잔재들을 바라보면서 위트, 욕망의 생성과 좌절 등 작가가 경험한 환각적 시공간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개인전 «카오스의 대피소.zip»(2019, 타이베이 디지털아트센터, 타이베이)을 개최했으며 단체전 2021 아시아 아트 비엔날레 «판타스마폴리스»(2021, 국립대만미술관, 타이베이) 등에 참여했다.

첸 상웬(CHEN Hsiang-Wen)

디지털아트센터 타이베이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첸 상웬은 전시된 작품들이 상호 간에 만들어내는 역학에 중점을 둔다. 공간의 특수한 분위기를 예리하게 감지하는 안목을 지닌 그는 읽기 쉽고 관련성이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전시 내러티브 구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사이의 삶: 현대 미술의 시각에서 본 몽골과 중앙아시아»(2022, 몽장문화중심, 타이베이), «우리가 남기고 간 이야기들로 거슬러 여행하기»(2021,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타이베이), «16회 디지털아트페스티벌 타이베이: 국경 없는 피난처»(2021, 디지털아트센터 타이베이, 타이베이), «숲을 형성하는 나무의 리듬»(2021, 자이)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클라라 조(Clara Jo) × 마라 조안나 콜멜(Mara-Johanna Kölmel)

클라라 조(Clara Jo)

클라라 조는 설치와 영상을 주요 매체로 사용하여 우리의 취약한 점과 불안정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존재들이 연결된 방식에 대해 탐구한다. 뉴욕 바드 컬리지에서 학사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공간 실험 인스티튜트에서 석사를 졸업했다. 그의 작업은 런던 왕립예술원, 킹스 컬리지, 바비칸센터, 베를린 필름 앤 비디오아트 연구소 아르스날, 베를린 함부르거 반 호프 현대미술관, 코펜하겐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에서 전시되었다. 2022년에는 독일의 올덴부르크 에디스 러스 미술관에서 개인전 «미러 터치»를 열었으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마라 조안나 콜멜(Mara-Johanna Kölmel)

마라 조안나 콜멜은 포스트-디지털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런던 기반의 큐레이터이자 미술사가이다. 서구 중심의 예술 규범이 지닌 틈새를 살피고 구조가 잊거나 지우고자 선택했던 것들을 인식하고 돌보는 일, 즉 응답하는 능력에 집중한다.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아카데미 솔로스 솔리튜드, 시드니 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였으며, 디지털 문화 기관인 '카라 아고라'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모질라 허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을 매개로 한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필자 Writers

보선

프리랜서 작가이다. 어두운 마음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 그려내길 좋아한다. 더 많은 존재가 덜 고통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고 있다. 『적절한 공룡 만화』(2021), 『나의 비거니즘 만화』(2020), 『평범을 헤매다 별에게로』(2016)를 지었다.

서한나

『사랑의 은어』(2021)와 『피리 부는 여자들』(2020)을 썼다. 글에 대한 평가 중 반가웠던 것으로 “술 한잔하자고 하면 애니타임 슈어일 정도로 장소를 마법화시켜...”라는 말이 있다.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로맨스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길보라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인 자질이라고 믿고,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 18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동남아시아를 홀로 여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길은 학교다』(2009)와 『로드스쿨러』(2009)로 펴냈다. 농부모의 반짝이는 세상을 딸이자 감독의 시선으로 담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4)를 찍고 동명의 책(2015)을 출간했다.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을 다룬 영화 「기억의 전쟁」(2018)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심사위원 특별언급을 받았다. 202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젊은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영 암스테르담 서포트 어워드'를 수상했고, 2020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탈렌츠랩: 독스테이션'에 공식 초청되었다. 2021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에게 수여하는 '젠더 챔피언 어워드'를 받았다.

하미나

논픽션 작가이다. 학부에서 지구환경과학과 철학을, 대학원에서 과학사를 공부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표적 살인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여성 운동 단체 '페미당당'에서 활동가로 지냈다. 이 시기에 깊어진 우울증을 고민하다 이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대학원을 탈출했다. 칼럼니스트, 과학 기자, 글쓰기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작가로 살기로 결심, 『시사IN』, 『한겨레21』, 『한국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2020년 그간의 연구와 만남, 고민을 한데 모은 첫 책 『미처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2021)을 펴냈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실제로 다르게 존재하는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온라인 전시 협력기획 제작 Online Exhibition Co-curation & Production

PACK.(팩)

2017년 결성된 PACK.(팩)은 전시 기획, 웹 개발, 미술 교육, 연구, 브랜딩, 디자인, 출판 등 여러 방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다. 작가, 기획자, 개발자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하며 창작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미술의 감상과 소장이 기술과 만나는 영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와 전시, 플랫폼을 기획한다. 주요 전시 및 프로젝트로 «힌터랜드»(2022, 뉴아트시티, 온라인 전시), «무엇이든 NFT»(2021, 공간 사일삼), «PACK 2019: 모험! 더블크로스»(2019, 탈영역우정국), «PACK 2018: 텅커벨의 여정»(2018, 공간 사일삼) 등이 있으며 «off»(2021, 공간 사일삼), «Art Street»(2020, 현대카드 스토리지), «Take Me Home»(2019, 플랫폼엘) 등에 참여했다.

2022 아르고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

2022.08.11-10.23

아르코미술관 제1, 2전시실, 스페이스필룩스,
아르코아카이브 라운지, 온라인 플랫폼 뉴아트시티

온라인 전시관 <군사체의 정원>

newart.city/world/arko-festival-2022



땅속 그물 이야기 웹사이트

www.fable-net-earth.art



참여 작가

나타샤 톤테이(Natasha Tontey), 돈선필, 모레신 알라야리
(Morehshin Allahyari), 무니페리, 송민정, 업체eobchae, 이영주,
클라라 조(Clara Jo), 케이켄(Keiken), 훈프(HONF), 황선정

참여 작가 × 게스트 큐레이터

김안나, 비살 쿠마라스와미(Vishal Kumaraswamy) × 리티카 비스와스
(Ritika Biswas)
리 위판(Li Yi-Fan) × 첸 상웬(CHEN Hsiang-Wen)
클라라 조(Clara Jo) × 마라 조안나 콜멜(Mara-Johanna Kölmel)

사전워크숍 「함께-세계만들기 Worlding-with」 & 필자

보선, 서한나, 이길보라, 하미나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트위터, 페이스북 @arkoartcenter

유튜브 ARKO Art Center

관람 시간 오전11시 - 오후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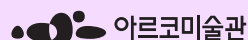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 휴무 / 추석 당일 휴무

관람료 무료

2022 아르고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은 미래사업부

예술과기술융합지원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협력

